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나보다 남 살릴 때 중생 속에 연꽃 핀다

백세사역 전문가 과정 개설 CPU 평생교육원 9월 8일

샌타페스프링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PU) 부설 평생교육원은 9월 8일부터 '백세사역 전문가 과정' 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기존의 시니어 사역을 단순한 '돌봄' 중심에서 '동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니어 성도들을 교회의 핵심 사역 주체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세미나에 110여 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총 1년에 걸쳐 4개 모듈(SPM 1-4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 ▶영성 노년학 ▶시니어 심리 이해와 상담 ▶황금기 선교사의 삶 ▶'복된 죽음' (Well-Dying) 준비 등 이론과 실재를 모두 다루는 강의로 구성된다. 각각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소논문 형식의 교재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또, 각 모듈 마지막에는 '나이 들의 미학', '미국식 장례 상식', '미국 노인 복지' 등 현장 적용 가능한 특별 세미나가 병행된다.

이번 과정은 연중 어느 모듈부터도 등록 가능한 유연한 학사 구조를 갖췄다. 9월에 개강하는 SPM 1 과정을 놓친 수강자는 12월 시작 예정인 SPM 2부터 수강을 시작할 수 있다. 1년 동안 4개 모듈을 모두 이수하면 '증명서' 가 수여된다. 강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돼, 시차와 지역에 상관없이 타주 및 한국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다.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9:30-11:30
- ▶등록 링크: <https://forms.gle/oHjzNAewRWHzeB4Z7>
- ▶문의: 황성만 목사(562-536-0128), puli_pm@cpu.edu, <https://lifelong.cpu.edu>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새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는 한인 방문객은 8월부터 한층 향상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차승원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기존 안내 콘텐츠 개편에 발맞춰 전면 업데이트됐다.

지난달 29일 교황청에서 열린 새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 전달식에서 서울대교구 이경상 주교는 "많은 한국 순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도 "한국인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성 베드로 대성전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여러분, 법화경을 공부하시면서 왜 그렇게 이를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 당시의 언어 산스크리트어로 법화경은 '묘한 백년의 가르침'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묘법연화경'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꽃을 상징해서 제목으로 쓴 경전은 흔치 않습니다. 연꽃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묘법연화경' 이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 이파리를 붙인 후에 꽃이 올라오는데, 흙탕물이나 더러운 물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 물이 위에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 버리고 고고하게 연꽃잎만 피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진리와 보살을 상징합니다. 보살은 삶은 더러움과 번뇌, 갈등, 욕망, 고뇌가 있는 중생, 곧 연꽃처럼 흙탕물에 살면서 진흙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꽃을 피워 고고하고 맑으며 청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보살은 곧 연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묘법연화경' 은 진흙탕 속에서 보살의 고고한 모습을 보이는, 진리를 밝히는 가르침,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의 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것이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도자의 참다운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꽃이고 보살인 것입니다.

혼탁한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맑은 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중생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는 연꽃처럼 고고하게 구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



로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 핵심사상의 하나는 진리를 밝히는 것, 또 하나는 보살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밝히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의 자세, 보살의 위신력, 구도자의 정신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에서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여래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언젠가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보살은 모두 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등 수없이 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이 곧 법사이며 보살은 모두가 법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바로 나입니다.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났지만 언젠가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아들이며,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동생, 아들, 딸, 내 이웃 등 지금은 비록 중생이지만 모두 부처님처럼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이 네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바세계는 탁한 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이며 번뇌, 갈등, 더러운 고뇌의 세계입니다. 이 혼탁한 세계에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연꽃처럼 어둠을 가둔 열 사람이 모이면 열 사람, 백 사람이 모이면 백 사람 속에서도 연꽃처럼 고고하기 피어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화경을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 더 많은 보살과, 더 많은 법사가 출현하기를 기원합니다.

-각현 스님-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